



지난 3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리·달이 마스코트 제작식이 열렸다.

## “국민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 치르겠다”

### 인터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 12일 개막한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선수권대회(챔피언스대회)와 마스터스대회로 치러진다. 선수권대회는 7월 28일까지 17일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수영·오픈워터수영·하이다이빙 등 6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마스터스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대회 개막이 8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대회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어떤 대회인가.

▲ 이 대회는 200여개 국가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하고, 세계 10억명이 생중계로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 하나다.

이번에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독일·일본·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적으로 5대 메가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4번째 국가가 돼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 광주에서 개최되지만,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가 크다.

수영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는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수영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으며, 수리와 달이를 곁에 두면 ‘모든 일이 술술달달 잘 풀린다’는 속설도 있다.

- 지난 3월 D-10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는데,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

▲광주시와 조직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D-100일을 기점으로 경기장, 선수촌, 경기운영, 안전, 수송 및 입출국 지원, 문화홍보, 자원봉사자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 분야별 준비사항을 매일 점검하는 CPX(지휘소 연습) 체제가 가동 중이다.

또 광주시도 조직위와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수영대회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 선수촌과 경기장 등 대회시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 선수촌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5개 동에 1,660세대가 들어선다. 선수촌은 선수들과 미디어진·수영동호인들이 사용하게 되며 6,000여명이 동시에 입실할 수 있다.

단순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식당·회의실·운영실 등 기능시설이 들어서며, 은행·편의점·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경기장 역시 하계 U대회 때 수영경기장이었던 남부대 수영장 관람석을 3,290석에서 1만 1,000석으로 늘려 주경기장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다이빙·아티스틱수영 경기가 펼쳐질 염주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개·보수 중이다. 수구경기가 펼쳐질 남부대 종합운동장에도 임시수조 2개가 설치된다.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타 축구장은 27m의 하이다이빙 타워와 임시수조 1개를 설치, 무등산과 광주 도심에 카메라 영글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거리인 오픈워터수영이 치러지는 여수엑스포해상공원은 2,000석의 관람석과 운영실을 설치해 직접 바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준비 중이다.



###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다양한 경로 통해 노력 BTS 등 아이돌 K-POP 슈퍼콘서트로 대회 범업

### 저비용 고효율 성공사례 ‘수영도시 광주’ 명성도 “마스코트 수리·달이 함께 하니 현안도 술술달달”

-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대회참가 여부가 대회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북한 선수의 참가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IOC 3자 회담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북한 체육상에게 제명의 초청 서한도 전달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에서도 북한 선수단 참가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다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남북이 하나가 돼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 수영대회 범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 같은데.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을 비롯해 용산역 등 전국 12곳에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조형물을 세웠고, 수리·달이가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저와 행보를 같이 하며 대회 홍보와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광주의 대회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회로 성공시키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는 총리주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전 부처에서 국내외 보조성 및 입장권 판매 등에 대해 협조키로 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K-POP 슈퍼콘서트가 4월 28일 개최된다. 이들 공연을 보기 위해 세계와 전국 각지에서 3만여명이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들 행사가 광주의 역량을 확인하고 대회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

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악인 오정해씨, 그리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수영 떠오르는 샛별 안세현 선수가 대회 홍보대사로 맹활약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체육계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 수영대회 개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됐나.

▲국민과 각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충분한 지원수준은 아니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개최 원칙 하에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보다 완벽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대회마스코트 ‘수리·달이’ 덕분에 광주 현안이 술술달달 잘 풀리고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리·달이’를 곁에 두면 모든 일이 술술달달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인지 수영대회 홍보를 위해 수리·달이와 함께 다니면서 광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요즘 광주가 벌이는 일마다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 통합형 일자리사업을 성사시켰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 대회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는 국제대회의 꽃이며, 대회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수영대회에도 총 8,600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며, 이 중 최종 3,000명을 선발해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자원봉사단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5월부터 경기장과 선수촌, 문화행사장 등에 통역·의전·안내·시상 등 총 31개 분야에 배치되며, 6월 공식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거쳐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 외에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 구청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경기장 응원, 관광안내 등을 지원하는 시민 서포터즈 1만 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 대회 성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대회의 주인이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찾는 선수단과 외국인들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와 조직위가 아무리 뛰어도 국민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는 대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강성수 기자



2월 19일 이낙연 총리와 오정해씨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대사 위촉



1월 31일 VIP 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기념촬영



24월 3일 청와대 사랑채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식